

# 사흘 앞둔 민주 원내대표 경선 '초선'을 잡아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9대 국회 초선 국회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구애가 뜨겁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27명 가운데 초선이 56명으로 전체의 44%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심이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보는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이 실질적인 답이며 구시대적 발상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인태 후보는 "이 상임고문이 박 최고위원에게 역할 분담을 제안한 것은 더 큰 분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두 분이 역할분담을 해서 나머지 분들은 소총수 역할밖에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후보는 "역할 분담론은

했다. 그는 이어 "제가 짧은 시간에 거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혼선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먼저 출발하신 세 후보들에게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선 의원들은 좀처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후보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는 원내대표 경선 구도를 광망하면서 경선 당일에야 지지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총선 완패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쇄신 없이 곧바로 선거 국면으로 이끈 것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표심의 유동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19대 당선자 44%...선거에 지대한 영향

## 출마 후보자들 표심 잡기 치열한 공방전

대부분 정치 신인이어서 특정 계파의 '오더'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지지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대세론'보다는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들은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30일 오후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초선 의원 간담회'에는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이 총출동,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비박(비 박지원) 연대'에 나서고 있는 유인태, 이낙연, 전병헌 후

두 분의 대주자가 당 최고 당직을 나눠 갖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보고)국민이 민주당에 희망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전병헌 후보는 "원내대표 경선이 새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게 된다면 대선은 해보나 마나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원 후보는 "3당 합당처럼 새누리당하고 했다면 그것은 답답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당내에서) 뭉쳤다면 좋은 일"이라며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 뿐이었다"고 반박

# 박근혜 경고 무서웠나

## 새누리 전대 2주앞...지도부 경선출마 선언 전무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한 마디가 무서웠다. 박 위원장의 경고성 발언 이후 지난 30일 현재까지 새누리당 5·15 전 당대회 경선 레이스에 단 한 명의 주자도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날로 후보등록일인 4일까지 나올 남았는에도 누구도 출마선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애초에는 10명의 후보가 거론됐다. 컷오프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지난달 25일 "당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갈

등과 분열로 가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이면 (새누리당은) 또 한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후 후보들이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사실 박 비대위원장의 당일 발언은 친박(친박근혜)계 위주로 차기 지도부가 낙점됐다는 '내정자 리스트'에 대한 경고였다. 그럼에도, 이 발언을 기점으로 차기 당대표 하마평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박 위원장의 위상과 새누리당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전히 당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표 도전 여부에 대해 "우선 민생법안이 쌓여있고 원내대표로서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최선을 다해 마치고 생각하겠다"고 단 말했다. 쇄신파의 남경필 의원은 아직은 "좀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은 "쇄신파 의원 모임이 수요일(2일)에 있다"며 "모임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19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 원외의 중진 카드인 친박 홍사덕 의원은 "선거에서 졌는데 제가 나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총선에서 '백의종군'한 김무성 의원도 주변에서는 출마 권유가 쏟아지고 있으나 일절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 대선관 점점 커진다

이재오·임태희·안상수 출마 가능성 등 非차주자 6~7명



박근혜 비대위원장 | 정몽준 전 대표 | 임태희 전 실장 | 안상수 전 시장 | 정두안 의원

'박근혜 대세론'에 맞서 비박(非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경선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비박 인사 중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미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데 이어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이재오 의원은 오는 10일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태호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들이 모두 경선에 나서면 당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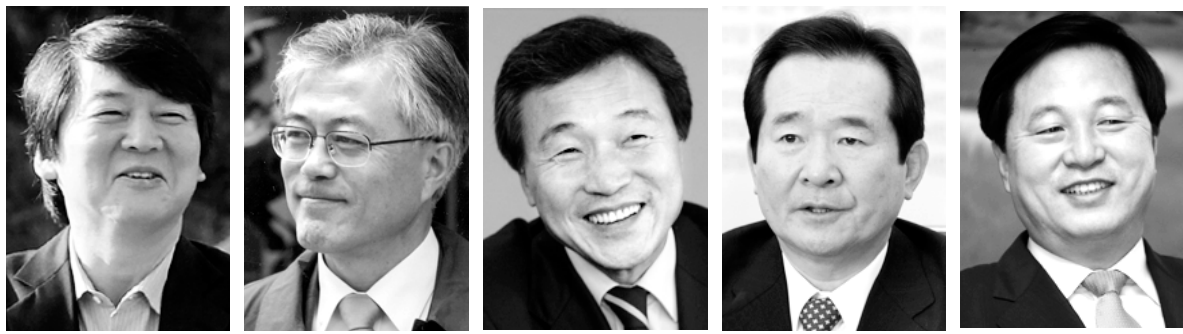
30일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합류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오는 6일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도권에서 3선에 성공한 소장·쇄신파 정두안 의원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태호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들이 모두 경선에 나서면 당내

비박 후보만 6~7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장외 주자인 정몽준 전 국무총리까지 여권의 대선후보 경쟁에 가세할 경우 판은 더욱 커지게 된다. 다만, 정 전 총리는 현재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는 방안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필패론'을 내세우고 있다. 표의 확실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이들은 또 우선 일제히 경

선물을 고리로 문치는 양상이다. 정몽준·이재오·김문수·비박 3인방은 안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촉구하며 줄기차게 박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연일 "박근혜 1인 지배체제", "민주주의 실종", "혼자가겠다는 오만" 등 박근혜 리더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비박 주자들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파란 단일화를 통해 적잖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지지율이 고만고만한데다 정치적 색깔이 달라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찾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라는 정반대의 시각도 엇촌한다. 정치권에서는 비박 주자가 스스로 경쟁력을 보이면서 지지도를 높여가겠다는 박 비대위원장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지지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당내 경선판이 일찍 달아오르고 있지만 초반이니만큼 현재 구도는 의미가 없다"며 "여야 전체 정치권의 변화와 함께 새누리당 경선판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야 대선 주자들 기지개

안철수 6월이후 출마선언 가능성...문재인·손학규·정세균 주목



안철수 원장 | 문재인 당선자 | 손학규 상임고문 | 정세균 상임고문 | 김두관 경남지사

총선이 끝나고 대선 정국이 도래하면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당장,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1학기를 마친 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당선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3주기인 다음달 23일 이후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 당선자는 친노를 넘어서는 정치적 리더십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는 2일 귀국하는 손학규 상임고문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이해찬-박

지원 역할분담론'이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손 고문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손 고문이 당내 비주류를 결집시킬 수 있는냐에 정치적 미려가 달려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세균 상임 고문도 대선 도전에 열정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저서인 '분수경제론'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가다듬고 있으며, 캠프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론조사 상에서 나타나는 미미한 존재감은 그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대선 구도를 뒤 흔들 수 있는 다크호스로 꼽힌다. 현직 경남지사로서 야권의 텃밭인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그러나 대선에 출마할 경우, '도박'으로 뽑아준 민심을 외면하고 지지자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부담이다. 김 지사는 현재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저서에 대한 집필을 거의 마쳤으며, 출판기념회를 여는 순간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대 총선에서 아깝게 낙선한 정동영 상임 고문도 소리 나지 않게 대권 플랜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17일에는 안철수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 스님과 회담해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정 고문은 '진보적 민생행보'를 통해 당내의 대선 주자와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대산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당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텀핑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062)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061)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